



남원농기센터, 기술사업화 협약 체결

남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26일,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김상진)와 상호 간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유기적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내 원푸드팀은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공동 마케팅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정보교류, 기업지원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컨설팅, 기술혁신 등 양 기관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인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사업화 관련 판매 계약 및 공동 마케팅을 포함한 각종 사업추진 시 정보교류·지원 및 상호협력하여 남원시 기술사업화 강화에 기여하도록 힘을껏"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독거노인 현황 조사 진행중

남원시는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28개 읍면동에서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여건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며,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 현황과 돌봄서비스 요구를 분석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될 위험성이 높은 독거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인식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전 직원 직장교육훈련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직장 교육훈련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통념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노력이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 서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우리의 공직문화 풍토가 조성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장계농협 농업인행복센터, 대보름 오곡밥 나눔

장계농협(조합장 박정음)과 농가주부모임장주연합회(회장 백영남)은 지난 23일 대보름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오곡밥나눔활동을 전개했다.

농가주부모임의 오곡밥나눔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올해는 취약계층 80가구에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오곡밥과 나물(고사리, 토란들깨볶음, 김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가호호 방문으로 인부를 전했다.

백영남 회장은 "보람달처럼 환한얼굴 생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대보름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을 느낀다"며 "지역주민 모두에게 동근 보람달처럼 올 한해도福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업인 자긍심 높일 농촌 만들어 보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들과 소통 행보 나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분야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전공별 학생들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장 20여명과 자리를 함께 하고 수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농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학교와 농업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데 대해 노고 많다"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들이 전북을 발전시키고 지역농업을 도약시키는 영웅이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으로 우리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들이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지역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자긍심 높여 농촌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국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 중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 가장 많은 전공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업지식 습득을 통해 영농역량을 키워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며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출향가족 5인... '가족 묶음형' 고향사랑기부 눈길

지난해 전북 도내에서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 1위를 달성한 순창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삼형제 기부로 큰 화제를 모은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 가족과 전북고속 황의중 회장 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 500만원씩 2,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이사, 김관수 호남제일고등학교 이사장 삼형제와 전북고속 황의중 회장 순창군어머니클럽 황의욱 회장으로, 이들 모두 순창군 고액기부자 모임인 순창어머니클럽의 일원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 24일 전주 알펜시아 컨벤션에서 열린 제2순창군향우회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며, 지역 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군은 지난해 김택수 회장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으로 연쇄효과가 일어나 가족 단위 기부가 이어져 기부문화 확산에 큰 효과를 거둔바 있다. 이에 군은 올해도 기부금 행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은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애틋한 마음으로, 올해도 내 고향 순창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 사랑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약속했다.

황의중 전북고속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 고향 순창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20·21대 회장단 이취임식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의 20·21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26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훈구 전북자치도연합회장, 전춘성 진안군수, 이미욱 진안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등 내빈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재 신임회장 취임식과 3년간 진안군연합회를 이끈 황인준 회장 이임식도 같이 진행됐다. 20대 회장을 맡았던 황인준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 뜻을 함께해 주신 임원 및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2024년 ~ 2026년까지 3년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를 이끌어갈 제21대 임원은 회장 이형재(백운), 수석부회장 노삼규(부귀면), 정책부회장 박명수(주천), 사업부회장 김보상(진안), 대외협력부회장 신중석(백운), 감사 이민호(동향), 임제수(백운)로 구성됐다.



이형재 신임회장은 회장이 취임사에서 "농업 위기 상황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농업인들의 권익향상과 후계농업경영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운장산 고로쇠축제 부스 운영자 교육

진안군은 오는 3월 9일~10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운일암 반일암 삼계관광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0회 진안고로쇠 운장산 고로쇠축제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스운영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26일 군청 강당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부스 운영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특히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운영자는 "다가오는 고로쇠 축제에 관광객들이 진안군의 축제는 친절할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좋은 기억으로 해마다 방문하고 싶은 축제 만들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남귀현 축제위원장은 "부스 운영자들께서 축제위원회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축제 만들기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 평생교육 전담인력 심폐소생술 자격증 연수

정읍시는 지난 23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격증 과정 연수를 시행했다. 이는 지역대학 연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과학대 HIVE사업 산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실무자 협의회와 함께 추진했다.

시는 최근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례에 주목해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기획했다. 심폐소생술을 익혀 위기 상황대처 능력을 발휘해 일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실천하자는 취지다.

이학수 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 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비전대 물리치료학과, 김제 금산면서 재능기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최승훈)은 지난 24일 전주·김제 물리치료사회와 함께 김제시 금산면 양치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INC 3.0 사업단에서는 1학과1마을1산업체 협약을 맺어 이번 마을방문은 LINC 3.0 재학생 물리치료사양성반의 김진영 교수(물리치료학과 학과장)가 참가했다.

재능기부 활동은 금산면 삼봉리 양치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활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방문재활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체조와 차매여방 레크리에이션을 진행,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한 한유나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된 재활전문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과정과 현장실습을 통해 익힌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주시물리치료사회(회장 양영식)와 김제시물리치료사회(회장 김혁)은 "비전대 물리치료학과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공유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치마을 김지현 이장은 "이번 재능기부활동으로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의학적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2023 에코업 업무 협약식 참여

전주비전대학교 에코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영주)은 첨단분야(에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 2023 에코업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석원경상관 112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주관대학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단장 김영), 참여대학으로는 전주비전대학교(단장 김영주), 건국대학교(단장 박기영),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단장 박희등), 영남대학교(단장 정진영) 등이다.

이번 협약은 에코업분야 산업 발전과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점, 학생교류 활성화에 목적을 뒀다.

김영주 단장은 "에코업 분야 중에서 전주비전대학교가 강점을 가진 오염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분야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융합인재양성을 위해 참여대학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에코업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실무 기반의 혁신융합 인재 양성을 해 나가려면 지자체 역량 강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 제6탄약창과 생명 존중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제6탄약창과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6탄약창 부대 내 군무원 및 장병들의 정신건강 전수조사, 정신건강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고위험군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간 업무협조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군 장병에게 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우울·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장병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향상 및 생명의 소중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건강교육, 개별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속적인 군부대의 건밀한 상호 간 업무협조로 건강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